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 연구

김영미
(서울대학교)

Kim, Young-Mee. (2014). Psychological experience of reading literary texts from the cognitive perspect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7, 41-59.

This paper studies psychological experience of reading narrative literary texts from the cognitive perspective. Vicarious experience through literary texts as construction of a virtual human world, generally understood as situation model in the cognitive process of text comprehension, can be grasped as readers' mental simulation on the backgrounds, scenes, and the actions of characters. Readers, however, not only simulate the outside world in the texts, but also recognize the inner states of the characters such as motivation, intention, and emotion, which makes readers' reading experience psychological reality. This empathic experience can be explained as readers' retrieving personal experience from the long-term memory as direct resources for inferencing the overall situation in the texts. In that cognitive text comprehens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learning by both updating and reconstructing memory, mental simulation through narrative literary texts ultimately leads to readers' personal growth by deeper understanding on themselves and broadening their horizon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wo educational implications on reading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importance of empathy through reading literary texts in communicative situation, and facilitation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by connecting readers' own experience with it.

Key Words: reading narrative literary texts, mental simulation, psychological reality, empathy, personal growth

1. 들어가며

교육학자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는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Actual Mind, Possible Worlds*)에서 문학 텍스트를 언어학적 형태나 구조, 역사적 사회적 맥락, 장르, 의미의 다중성 등을 규명하는 전통적 문학 연구 방식과

달리 독자가 문학 작품을 통해 무엇을 체험하는지, 작품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와 같은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마음’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브루너, 2011, pp. 21-22). 브루너는 동일한 문학 작품이라도 독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유발된다면 문학 연구는 “실제 텍스트 형태에 관련된 것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서 풀려나오는 해석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브루너, 2011, p. 27)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독자가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심리학으로서의 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독자의 마음과 관련한 문학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텍스트 자체의 내재적 질서에 의해 문학 작품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신비평에 대한 반발로 출발한 이 무렵의 새로운 비평적 경향은 구조주의, 현상학, 해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독자를 텍스트의 의미 생산의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독자반응비평으로 통칭된다. 예컨대 이저(Wolfgang Iser)는 읽기를 결코 텍스트에서 독자로 “직행하는 내재화”(direct internalization) 과정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간 역동적 상호작용”(a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으로 파악하면서 텍스트 이해에 있어 독자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Iser, 1978, p. 107). 이런 비평적 경향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로젠블랫(Louise M. Rosenblatt)이나 퍼브스(Alan C. Purves), 비치(Richard Beech) 등에 의해 독자의 반응을 중심에 두는 문학 교육 이론으로 발전한다.¹

최근 인간 정신의 본질 규명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지과학과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인간 마음의 작용에 바탕을 둔 문학,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의 영역 또한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 사실 작가와 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학 활동은 인지과학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바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예컨대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문학 텍스트의 내용을 정보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자기 나름의 심적 모형을 만들어 등장인물의 의도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정서적 기제와도 연결시킨다. 이런 독자의 마음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지-정서적 과정이며 따라서 문학 역시 인지과학과 공유되는 영역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이정모, 2009, pp. 654-655).

이 글은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정신적 경험을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문학 텍스트에는 시, 소설, 희곡,

¹ 관련 문헌은 로젠블랫의 『탐구로서의 문학』(*Literature as Exploration*)과 파렐(Edmund J. Farrell)의 『문학과의 상호교통』(*Transactions with Literature: A Fifty-year Perspective: For Louise M. Rosenblatt*) 등이 있다.

에세이를 망라하여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문학 텍스트는 소설이나 희곡, 혹은 일부 시에도 해당되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텍스트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내러티브 양식은 문학 텍스트의 독특한 정신적 경험을 일으키는 핵심적 구조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매체를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연구되는 하나의 실질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근래 들어 인지과학과 내러티브가 서로 접점을 이루면서 문학텍스트 독서 체험을 인지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본문 첫째 장에서는 내러티브 양식으로 구조화된 문학 텍스트 읽기를 텍스트 이해의 인지 모형으로 살펴보면서, 독서 과정 중 독자의 정신적 경험을 타인의 외적 행동뿐 만 아니라 의도나 정서까지도 시뮬레이션하는 공감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문학 텍스트 독서의 공감 기제는 근원적으로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의 추론이라는 점을 분석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는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은 궁극적으로 독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면서 동시에 독자가 내적으로 품고 있는 삶의 경험이 확장되고 쇄신되는 과정임을 이해, 학습, 기억에 관한 인지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 분석이 외국어 교육에서 함의하는 바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다.

II. 정신적 시뮬레이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단편 모음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애러비」("Araby")에는 친구의 누나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한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매일 아침 나는 길 쪽의 응접실 마루에 누워 그녀의 집 문을 살폈다. 차일이 창틀에서 1 인치 정도 남겨놓고 내려져 있어서 내가 보일 리는 없었다. 그녀가 현관 층층대로 나올 때면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서 책을 집어 들고 그녀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의 갈색 모습을 내내 눈에서 놓지 않았고 그러다가 갈 길이 각자 갈라지는 지점이 가까워졌을 때 걸음을 빨리 하여 그녀를 지나쳤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마다 되풀이되었다. 나는 무심결에 주고받은 몇 마디 말고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이름은 나의 모든 어리석은 피를 한군데로 솟구쳐 쏠리게 만드는 것이었다(p. 33).

어떤 독자들은 이 글을 읽고,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 소년이 길다란 갈색 소파에 누워 창 밖을 살피는 모습이 떠올랐을 수 있다. 혹은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소년의 애타는 심정, 사모하는 여인을 뒤따르면서 느끼는 긴장과 희열과 같은 인물의 복합적 감정 상태를 느낀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짝사랑은 으레 한 사람의 가슴앓이로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렴풋이 소년에 대한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다. 독자는 단지 문자로 구성된 텍스트를 읽었을 뿐인데, 또 그 텍스트는 실체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시공간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행위, 그리고 동기나 감정과 같은 정신적 상태를 마치 실제와 다름없이 경험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교육학자 이건(Kieran Egan)은 이런 현상은 인간 상상력의 작용과 직결된 것으로서, 상상을 통해 단어로부터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은 언어 사용에 수반되는 강력한 인지도구의 하나라고 말했다(이건, 2014, p. 120). 문학 텍스트 독서의 이런 특수한 정신적 경험을 인간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이해(comprehension) 한다는 것은 텍스트 속에 기호화된 내용을 해석하여 독자의 마음에 인지적 구성물을 구축하는 행위로 본다. 대체적으로 텍스트 읽기의 단계는 텍스트 해독과 관련된 하위 단계와 텍스트 이해와 관련된 상위 단계로 구성된다. 하위 단계는 음성 인식, 단어 인식, 기본적인 의미 해독과 관련되며, 상위 단계는 독자의 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담화 수준에서 추론하여 텍스트의 의미적 일관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다(Grabe, 2009, pp. 21-58). 특히 독자의 추론이 필요한 텍스트 이해의 상위단계에서는 텍스트 요소들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텍스트가 나타내는 ‘상황’까지도 재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텍스트 이해 방식은 ‘상황 모형’(situation model), 혹은 ‘정신 모형’(mental model)이라는 인지 모형으로 설명된다(Johnson-Laird, 1983; van Dijk & Kintsch, 1983).

인지 언어학적 입장의 연구자인 킨취(Walter Kintsch)는 『이해: 인지 패러다임』(*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에서 수십 년 동안의 담화 처리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텍스트 이해과정을 종합하는 ‘구성-통합 모형’(construction-integration model)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 모형은 구성-통합 모형의 최종단계에 해당한다(킨취, 2010, pp. 215-258). 텍스트 이해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복합적,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지만 킨취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텍스트의 표면구조, 텍스트 기저(text base), 상황모형의 세 단계로 나눈다. 우선 텍스트의 표면 구조는 맥락과 무관한, 융통성 있으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느슨한 명제 그물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모순되는 정보까지 포함한, 다소 혼란스러운 텍스트 표면 구조에서 선별적으로 필수 요소를 가려내는 과정이 가동되면서(제약-만족 과정, constraint-satisfaction process) 그

짜임새가 가다듬어지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확보되는 텍스트 기저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은 텍스트 기저의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이해 주체의 배경지식에 의해 텍스트 기저가 정교화(elaboration)되거나 독자의 신념에 따른 해석이 더해지면서 일관되고 정합적인 정신 표상인 상황모형이 생성된다.

기본적으로 상황모형은 모든 종류의 텍스트 이해에 적용되지만 특히 문학 텍스트 독서로 형성하는 상황모형은 과학 교과서나 신문 사설란을 읽을 때 독자의 머릿속에 구축되는 정신적 표상과는 사뭇 다르다. 첫머리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설명이나 논증의 성격을 가진 텍스트 이해와 달리 문학 텍스트가 만드는 상황모형은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세계의 형태로 구축된다. 즉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정교하게 구축한 텍스트 세계 안에서 등장인물의 삶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가 독자로 하여금 정신적 병렬 세계를 창조하고 등장인물의 행위를 시뮬레이션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학 텍스트 자체가 인간의 삶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스스로의 관심사에 따라 현재 세계를 조금씩 변형시킨 다양한 세계관을 일상적으로 재현한다는 굿맨(Nelson Goodman)의 통찰은 문학 텍스트의 정신적 세계 창조 기능을 재확인해준다. 일부 특수 장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학 텍스트는 현실 세계와 형식적 구조를 공유하는 내러티브 양식, 혹은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대체로 “연쇄적으로 조직되고 인과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인 인물의 행동”(characters whose actions are sequentially organized and causally related, Temple and Gillet; Lauritzen and Jaeger 에서 재인용, 1997, p. 34)에 관한 것으로서 인물들이(누가)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가(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다. 이처럼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시, 공간적 위치 속의 특수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적 양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정신적 경험은 내러티브가 아닌 텍스트들과는 상이하다. 다시 말해 독자는 텍스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행위와 처지를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그런데 독자는 단순히 등장인물의 외적 행동만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독자는 암시적인 등장인물의 내적 동기나 의도, 그리고 구체적 감정까지도 함께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는 문학텍스트 이해를 통해 타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은 “만일 P 가 P*를 적절하게 복제하거나, 되풀이하거나, 답았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P 가 그 목적이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한다면, P 의 과정이 P*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a process P

simulates a process P*, if and only if P duplicates, replicates, or resembles P in relevant respects, and P fulfils one of its purposes or functions thereby)라고 정의된다(Goldman, 2006, p. 37)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나 생물학, 기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통 복제나 모사처럼 대상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상상적으로 일으키는 ‘정신적’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은 그 과정이 약간 다르다. 방금 언급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신적 시뮬레이션은 텍스트 요소들의 단순한 되풀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하는 주체, 즉 텍스트를 읽는 독자 자신의 해석과 판단이 개입된 적극적인 행위이다. 특히 내러티브 텍스트의 경우 직접 제시되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의도나 사건들 사이의 인과성 파악이 텍스트 이해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내러티브 세계 속에서 독자가 수행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은 생물학적인 복제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의 사본의 개념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실제 내러티브 텍스트 이해의 양상을 고찰하는 심리학 실험들에서도 실험 대상자들은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등장인물의 동기나 의도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Glenberg, Meyer, & Lindem, 1987; Zwaan & Radvansk, 1998; Bower & Morrow, 1990), 또 어떤 대상을 정신적으로 상상하게만 하여도 실험대상자들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실제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도 밝혀졌다(Dadds, Bovbjerg, Redd, & Cutmore, 1997; Rozin, Millman, & Nemeroff, 1986; Rozin & Fallon, 1987). 이런 인지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독자들이 문학텍스트 독서 체험을 통해 인지적 감성적으로 실제 세상 경험과 다름없는 정신적 모형을 구축하고 조작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최근 시뮬레이션이 갖는 이런 공감적 기능을 타인의 마음 읽기에 작용하는 핵심적 인지 매커니즘으로 보는 ‘모방 이론’(simulation theory)이 기존의 ‘마음의 이론’의 대안으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마음의 이론’에서는 인간은 타인의 의도 이해를 위해 인지적 추론을 사용한다고 본다. 즉 백지 같은 마음 상태로 태어난 아기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행위와 그에 수반하는 결과를 반복 관찰함으로써 그 사이를 매개하는 타인의 정신적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고든(Robert Gordon), 힐(Jane Heal), 골드만(Alvin I. Goldman) 등은 인간은 이론적 추론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정신적으로 따라함으로써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컨대 골드만은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투사하는 발견적 행위”(the heuristic of projecting oneself into the target's shoes, Goldman, 2006, p. 431)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정신적으로 대상이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가상의 상태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상이 갖는 감정, 신념, 결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이해에 대한 공감적 접근법인 ‘모방 이론’은 인간의 뇌 속에는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기만 해도 실제 그 행동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신경 세포인 거울 뉴런(mirror neurons)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장대익, 2012, pp. 181-185). 원래 거울 뉴런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마카크 원숭이의 특정 행동과 신경세포의 관계를 연구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연구원이 손을 쥐는 행위를 바라보던 원숭이의 뇌에서 갑자기 원숭이 자신이 직접 손을 쥐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거울 뉴런의 존재는 정신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모방 이론’에 생물학적 근거를 부여해 준다.

기실 타인의 행위를 정신적 시뮬레이션하면서 얻는 공감 기능은 오늘날 갑자기 부상한 사안은 아니다. 이미 기원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문학 경험의 본질은 모방(mimesis)에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 하며, 처음에는 모방에 의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에 있다”(아리스토텔레스, 2005, p. 22)라고 하면서 타인의 경험을 대리 체험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은 인간 본능에 가까운 핵심적인 인지 기능이며, 동시에 세상 이해를 위한 지식을 주는 교육적 측면이 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요컨대 인간의 정신적 시뮬레이션 능력은 실제 세상 이해 방식과 다름없는 인지 작용으로서, 단지 상상만으로도 인간의 동기나 의도를 추측하고, 실제와 동일한 생리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경험과 비교하여 물리적 움직임만 제외하면 그 본질은 동일한 심리적 실재(psychological reality)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설명들은 텍스트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등장인물의 삶을 정신적으로 재현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으로서의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 현상 또한 인지적, 정서적으로 현실 체험과 다름없는 경험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III. 시뮬레이션의 공감 구조

그렇다면 타인의 행위를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행위는 왜, 어떤 기체에 의하여 이해 대상의 동기나 의도, 감정이나 신체적 상태를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만드는가? 킨취의 텍스트 이해 모델을 참조하면 이런 독자의 공감과 관련된 문제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 구조인 텍스트 기저보다는 텍스트가 재현하는 상황의 해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황모형 단계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상황모형을 구축하는 핵심 기제는 독자의 인지적 추론이다. 추론이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자 하는 바와 우리의 배경지식을 이루는 기억의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기본적 인지 기제의 하나”(the one of the fundamental cognitive mechanisms that connect what we are currently attempting to understand with memory resources that provide our background knowledge)로서 인간이 주변 환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인지 과정에 속한다(Grabe, 2009, pp. 68-69). 추론은 이해 대상들 간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결 추론’(bridging inferences)에서부터 사건들 사이의 인과성이나 인물의 의도, 심리적 상태와 같이 상황 예측에 필요한 ‘상세화 추론’(elaborative inferences)까지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 지시어 파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을 제외하면,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일반적인 추론 과정에는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장기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현재 이해의 대상인 텍스트 요소들과 관련 있는 특정한 정보가 추론의 자원으로 인출되어야 한다. 독자는 인출된 기억 자원을 통해 비로소 텍스트 요소들을 해석하여 상황모형을 구축한다.

그런데 문학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구축하는 상황모형은 등장인물의 구체적 삶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 이해에서의 가장 주요한 추론 대상은 바로 등장인물의 의도나 동기, 감정과 같은 인간 삶의 정신적 자질들이다. 독자는 텍스트 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의도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대상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장기 기억 구조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 인출되는 것은 바로 현재 이해 대상과 유사한 맥락을 갖는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이다. 결과적으로 설명이나 논증과 같은 과학적 텍스트 장르들은 독자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대체로 텍스트 기저의 논리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일한 상황모형이 생성되는 경향과 달리, 문학 텍스트는 의도적 행동과 특수한 감정이 관련되어 있는 독자 자신의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추론 자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독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중 수준에서 여러 개의 상황모형이 구축될 수 있다(킨취, 2010, p. 162).

예컨대 앞서 예시된 텍스트로 상황모형을 구축하는 독자는 텍스트에 묘사된 상황에 관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그에 부수하는 의도성이나 정서와 같은 텍스트 바깥의 정보들을 텍스트 이해에 끌어들인다. 그것을 토대로 독자는 소년의 집이나 거리 풍경 같은 구체적인 공간뿐 만 아니라, 소년의 행동에 관한 동기와 의도, 한 여인을 향한 소년의 애뜻한 감정을 포함하여 하나의 견고한 세계 속에서 의도 있게 행위하는 인물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독자의 경험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재현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황 모형 하에서의 텍스트 이해 과정은 작가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또한 중요하다(Grabe, 2009, p. 43). 이런 의미에서 문학 텍스트 이해는 독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텍스트에 대한 반응, 혹은 독자의 텍스트 해석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문학 텍스트 이해에 들어있는 공감의 원리는 바로 추론을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이해 대상과 유사한 자기 이야기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타인을 마음속으로 모사하는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 ‘모방 이론’에서도 인식 주체의 기존 지식에 의한 최소한의 추론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모방 이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상황을 제 3 자에게 “투사”(projection)하는 제삼자 귀인(the third-person attribution)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자기 귀인(self-attribution)이 일어난다고 본다(Goldman, 2006, pp. 223-257).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시뮬레이션으로 경험되는 정신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제삼자에게 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결국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타인의 처지에 투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학텍스트 독서 체험에서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바로 텍스트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과 느낌을 등장인물의 상황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타인의 마음 읽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 읽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IV. 문학 텍스트 독서를 통한 독자의 변화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이건 바로 내 이야기야”라는 확신을 갖거나,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독자의 반응은 타인의 이야기를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텍스트 이해과정을 통한 독자의 내적 변화의 두 가지 양상이다. 이 장에서는 문학 텍스트 독서의 두 가지 인문적 가치인 자기 발견의 측면과 경험의 지평이 확장되는 측면을 인지 이론의 학습, 기억과 관련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이해, 학습, 기억

기본적으로 이해 과정은 새 정보를 기존 지식에 의해 처리(추론)하여 이해의 결과물을 다시 자신의 지식구조에 통합하는 인지적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 이해 역시 독자의 기존 지식구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역동적 기억』(Dynamic Memory Revisited)에서 타인의 이야기 이해를 인간의 학습, 기억과 관련시키고 있는 생크(Roger C. Schank)의 인지 심리학적 논의는 문학텍스트 독서 체험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기본 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크에 따르면 이해란 “밀접하게 관련된 과거경험이 생각나는 현상”(생크, 2002, p. 29)으로서 타인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기억 구조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전제로 그는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견해를 수정시켜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는 것에는 5 살 때 우리 집 자가용 뒷좌석에서 나던 냄새, 십대일 때 테이트 상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던 일, 그리고 노상에서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동차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각의 경험은 어떤 개인이나 문제 또는 인생의 과업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다. 각 경험은 다른 경험에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움을 준다(생크, 2002, pp. vii-viii).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개념에 관한 인간의 기억은 마음 한군데에 자연과학적 정의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무수한 경험의 맥락 속에서 다른 정보들과 서로 복합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것들은 생크의 지적대로 엄밀하게 말해 개념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은 아니지만, 어떤 개념에 관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이처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지 않고서는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없다.

생크가 타인의 경험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이야기 구조를 갖는 기억의 인출과 저장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의 학습과 기억의 관계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인지과학에서 다루는 학습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이고 형식화된 지식 학습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각종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행동 양식이나 지식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변화가 비교적 오래 지속하는 현상”(이정모, 2009, p. 425)을 말한다. 인지과학이 인간의 학습의 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습은 어떤 인지적 과정으로 인해 일어나는가 이다(이정모, 2009, pp. 436-453). 근래 인지신경과학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상당부분 밝혀진 뇌의 학습 원리는 대부분 기억의 인출, 저장, 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기실 학습은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기억은 습득된 지식이 장기 기억구조에 저장되고 인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 놓고 설명하기는 힘들다.

인지과학에서는 기억의 인출을 주소 찾기 같은 단순한 기계적 탐색 과정이 아니라 인출 시 주어진 단서와 자신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목표 항목을 재구성하여 그 결과가 목표자극과 비교하여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은 먼저 기존 지식구조에서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만한 기억을 재구성하여 인출한 뒤 둘을 비교하여 적절성을 판단한다. 한편 기억의 저장은 먼저 기억해야 할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호로 변환된 뒤, 그것과 관련된 신경망 사이의 연결강도 조절 등 기억 구조의 전체적 패턴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다시 말해 기억은 창고에 물건 쌓듯 차곡차곡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기억구조를 업데이트하는 재조정 과정인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학습과정은 텅 비어있는 머리에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구조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 뒤 기억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선택하여 기존 지식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통합시키는, 구성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생크는 이런 인지과학의 학습과 기억의 작동 기제의 틀 안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인지적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인간이 새로운 이야기를 처리할 때에는 그것과 유사하다고 예측되는 과거 경험을 인출하여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의 기억 속의 과거 경험은 실제 겪은 사건 그대로가 아니라 사건의 뼈대로만 구성된 보편 구조로 본다. 사람의 기억을 일반화된 보편 구조로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억을 인출할 때에는 실제 겪었던 사건 자체를 그대로 회상해내기 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원형 이야기 구조를 회상한 후 현재 가용한 세부 사항들을 통해 그 원형을 “채색”하는 심리적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이야기를 처리할 때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란 결국 해석자의 기존 지식 구조에서 인출된 보편구조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유사한 정도로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이다. 이때 새로운 이야기와 해석자의 기억 속 보편 구조가 일치하면 새 정보는 기정치(default)로 처리되어 저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편 구조를 토대로 새 정보의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재구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가 가장 근접한 기억의 보편구조와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또 기존 구조와 불일치하는 세부 사항들이 계속 축적되면, 결국 인간의 마음은 기존의 보편 구조를 새로운 이야기 구조로 수정한다. 생크는 이처럼 인간의 기억이 계속 새로운 구조로 확장·재편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학습으로 보았다.

2. 개인적 신념 형성을 통한 자기 이해

위의 인지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문학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기존 경험 중 새로운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보편 구조를 인출하여 추론의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새 이야기와 기존 경험의 유사성이란 글자 그대로 두 이야기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행위의 목표, 신념 등이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생크, 2002, p. 101). 두 이야기를 비교해본 결과 문학 텍스트의 이야기 구조가 독자가 인출한 경험의 보편구조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정도로 대응하면 새로운 이야기는 기정치로 처리되어 독자의 기억 구조에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유사점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가진 과거 경험이 자기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보편구조와 관련된 독자의 개인적 신념은 더욱 강화된다. 이 점에 관해 생크도 해석자가 도출한 보편구조가 새로운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신의 예측에 관한 확신이 보편구조에 대한 신념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생크, 2002, p. 80). 다시 말해 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자기 경험의 진실성을 확신시켜주는 증거 목록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의 자기 발견의 측면에 대한 인지 철학자 루이스(David Lewis)의 견해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 개인적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준다(Lewis, 1983, pp. 276-280). 독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잠재적 가능성만을 지닌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험들은 그 의미를 구현해줄 수 있는 명제를 만나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면 의미 있는 명제를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경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다. 루이스는 문학 텍스트 특히 소설(fiction)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마음속에 사장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명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소설을 참조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설이 우리 마음에 일깨워 준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Lewis, 1983, p. 279).

예컨대 사람들은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들이 그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보며 그것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독자들은 문학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런 사건은 나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예시(simpliciter)로 볼 수 있는가?”(Lewis, 1983, p. 279)를 마음속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독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수많은 경험들 중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문학 텍스트의 사건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진실이라는 증거들이 확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 속 사건들은 허구이지만 그 허구로 인해 독자가 형성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독자의 과거 경험들은 실제로서 유효하다.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창조함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작가 자신과 유사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문학 텍스트를 통한 이러한 독자의 변화는 노골적인 도덕적 충고에 의한 설득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자발적 변화라는 점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문학치료(혹은 독서치료, *bibliotherapy*) 효과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문학 텍스트 독서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내적 경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독자 마음의 저항과 방어기제를 누그러뜨리며, 독자 자신의 억눌린 욕구나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내적 상흔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고립을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변학수, 2005, p. 5). 이런 이야기 치료의 효과 역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야기 이해란 기억 구조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인출하여 대응시키는 자발적 자기 이야기 만들기의 과정으로서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아 발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경험의 지평 확장

반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사하다고 예측하여 독자가 인출한 경험의 보편 구조가 현재 이해 대상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독자는 해당 이야기의 이해가 지연되는 동안 대응될 수 있는 다른 이야기 구조를 찾아보는 등(생크, 2002, p. 97)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인지적 노력을 경주한다. 그런데 기존의 보편구조와 맞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독서 과정 중 계속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런 요소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는 방식으로 기존 경험의 보편 구조는 재편과정을 겪는다. 다시 말해 독자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사실 문학 텍스트 독서에서 독자의 기존 경험 구조가 재편되는 측면은 문학의 본질인 문학성(*literariness*)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찍이 일상적 언어와 구별되는 문학 언어만의 특징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문학의 요체는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우리의 습관적인 지각을 일깨우는 것으로 보았다(슈클로프스키, 1981, pp. 85-87). 보통시의 경우에는 리듬이나 비유에 있어서 일상 언어와는 다른 결합 규칙을 사용하고, 소설의 경우는 플롯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달성한다. 다시 말해 문학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 구조와는 다른 이질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문학 텍스트 독서를 통하여 경험의 지평을 넓혀가는 역동적 인지 과정은 1960년대 독일의 수용 미학을 체계화한 이서의 현상학적 텍스트 이해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Iser, 1978, pp. 107-134). 앞선 인지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독자의 문학 텍스트 독서 과정을 기존 지식 구조에 저장된 독자의 경험을 인출하여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여 저장하는 기억의 구성적 과정으로 파악했다면, 독자의 주관적 의식에 느껴지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저의 독서 절차는 독서 중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각 국면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킨취의 상황 모형 구축과 유사한 텍스트 이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경험과 상이한 텍스트 요소들이 지식 구조를 변화시키고 갱신함으로써 독자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입장이 공통점을 보인다.

이저 역시 기존의 경험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명시(denotation)하지 않는 것을 문학 텍스트의 특징으로 보았다. 명시란 사물을 고정된 특정한 의미로 제시하는 것을 뜻하는데, 문학 텍스트는 일부러 경험적 대상을 실제 맥락에서 이탈시켜 원래의 의미를 흔들며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화한다. 이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문학성의 요체로 보았던 ‘낮설게 하기’와 다름 없다. 이런 낮선 요소들은 독자가 각 문장들의 의미를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일관적인 의식적 상관물(correlative)인 게슈탈트(형상)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남겨진다. 하지만 배제된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남아서 낮선 연상을 일으키며 일관성 형성을 계속 방해하게 된다. 이런 낮선 연상들이 계속 축적되면 기존에 형성된 게슈탈트를 공격하여 무너뜨린 후 새로운 방향으로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독자는 문학 텍스트 독서 과정에서 기존 경험의 기억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즉 새로운 게슈탈트로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학습 과정을 겪는다. 이저는 인간의 경험이란 결국 익숙한 것을 인지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한 것들을 파괴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게 전환해 나가는 재창조(recreation)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재창조의 원동력은 바로 문학 텍스트가 인간에게 익숙한 경험의 구조를 낮선 것으로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구조를 찾도록 자극하는데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문학 텍스트 독서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재서술해 나가면서 부단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Rorty, 1989, pp. 73-95).

V. 외국어 교육에의 함의

학습자는 문학 작품 독서를 통해 단어 사용법이나 통사 구조와 같은 언어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언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등 (Collie & Slater, 1987, pp. 3-6; McKay, 1986, p. 191) 문학 텍스트가 외국어 교육에서 갖는 함의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학 텍스트 자체의 자질이 갖는 이점보다는 앞서 논의한 독자의 문학 텍스트 읽기 체험, 즉 상상력을 통해 인간 세계를 시물레이션하는 독자의 내적 경험에 초점을 두어 큰 틀에서 외국어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

외국어 문학 텍스트 읽기가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러티브 텍스트 독서를 통한 정신적 시물레이션 능력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갖는 중요성에 있다. 보통 외국어를 잘 한다는 기준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와 같은 산출(production)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의사소통은 말이든 글이든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즉 타인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2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해란 단지 말이나 글에 담긴 언어적 의미를 해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포하는 동기, 의도, 정서, 분위기와 같은 전체적 상황의 파악(상황 모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정신적 행위이다.

그 동안 외국어 읽기에 관한 교육이나 연구는 주로 단어 인지를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와 같은 하위기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이해에 사용되는 작업기억(working-memory)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낮은 읽기 능력을 가진 대다수의 외국어 학습자들은 하위기체의 처리에 작업기억의 대부분을 쓰는 바람에 상황모형을 만드는 상위기체에 할당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읽기는 하위기체와 상위기체가 동시에 작용하는 인지 현상으로서 상당한 범위까지 서로 간에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닌 복합적 활동이다(킨취, 2010, p. 278). 그러므로 비록 낮은 읽기 능력을 갖고 있지만 특정 영역 지식(혹은 세상 지식)이 많은 독자의 경우,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언어 기능이 높은 독자를 능가하는 읽기 수행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킨취, 2010, p. 287). 예컨대 우리나라의 성인 외국어 학습자와 같이 풍부한 세상 경험을 갖춘 독자가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수준에 맞는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면 비록 낮은 언어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읽기의 상위기체가 하위기체를 보상하여 전체적 텍스트 이해의 수준은 상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어 문학 텍스트 읽기에서 독자가 수행하는 정신적 시물레이션은 타인의 정신적 상태와 처지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핵심적인 인지 이해 기체의 하나로서, 의사소통을 기본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특히 비중을 두어 연구하고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된다. 특히 문학 텍스트 독서는 상황모형 구축의 추론에 필요한 자원이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가진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낮은 언어 지식을 보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주지하다시피 교실을 벗어나서는 외국어로 삶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는 문학 텍스트 독서를 통해 외국어로 “실제와 닮은 없는 모형을 구축하고 조작”(Bower & Morrow, 1990, p. 48)하는 정신적 경험 자체가 외국어 학습 상황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독자 자신의 경험을 통한 학습

외국어 교육에서 외국어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이 주는 두 번째 함의는 학습의 맥락을 독자의 삶의 경험과 연결한다는 점이다. 브루너, 터너(Mark Turner), 생크를 비롯한 많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내러티브 양식을 인간의 주요한 마음 구조의 하나로 본다. 인간의 경험, 지식, 기억을 이루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라는 점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내러티브 텍스트(말과 글을 모두 포함)의 정신적 경험이 매우 강력한 교육적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장에서 언급하였던 인지적 관점에서의 학습 개념, 즉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교과지식 습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행동양식이나 지식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학습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기억이나 지식을 이루는 마음의 구조와 관련하여 일어난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그냥 제시한다고 해서 학습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양식이나 지식 구조가 변할 수 있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려면 학습 상황 자체가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기억과 같은 마음의 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증거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될 때 쉽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타인의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외국어 문학 텍스트 독서가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함의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형식적으로 인간 경험 구조와 유사한 문학 텍스트의 내러티브 양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과거 삶의 경험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마음의 구조와 학습을 연결한다. 다시 말해 문학 텍스트 독서 체험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해당 언어와 학습자의 내적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의미 있는 학습의 장을 형성하도록 해 준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VI. 나가며

신경과학, 인공지능, 심리학을 핵심 영역으로 언어학, 인류학, 교육학, 컴퓨터 공학 등 다른 학문들과의 수많은 응용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인지과학의 과학적 경험적 개념과 이론은 그 동안 예술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론을 전개해 오던 설명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인간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이 문학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은 역으로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탐구 방법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 독서 경험을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글은 문학을 문학의 바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초기의 문학이론가들이 탁월한 ‘직관’으로 도출해 낸 문학에 관한 이론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재구성”(전미정, 2013, p. 293)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인지과학적 개념이 낯설지 않은 외국어 교육 연구의 장 안으로 문학 텍스트 독서의 인문적 가치를 끌어들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변학수. (2005). 치료로서의 문학과 문학치료. *세계문학비교학회 2005 년 춘계 학술대회*. 3-9.
- 브루너, 제롬. (2011).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마음과 세계를 융합하기*. 강현석, 이자현, 유제순, 김무정, 최윤경, 최영수 옮김.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Bruner, J. (1986). *Actual mind, possible worl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샹크, 로저 C. (2002). *역동적 기억: 학습과 교육에 주는 함의*. 신현정 옮김. 서울: 시그마 프레스. [원저: Schank, R. C. (1999). *Dynamic memorie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슈클로프스키, 빅토르. (1981) 기법으로서의 예술. 츠베탕 토도로프 (편).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의 이론* (pp. 78-103). 김치수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아리스토텔레스. (2005). *시학*. 이상섭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건, 키어런. (2014). *상상력 교육: 미래의 학교를 디자인하다*. 김희용, 곽덕주 옮김. 서울: 학지사. [원저: Egan, K. (2008). *The future of education: Reimagining our schools from the ground u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이정모. (2009).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대익. (2012). 거울 뉴런과 공감본능. 홍성욱, 장대익 (편). *뇌과학, 경계를 넘다: 신경윤리와 신경인문학의 새 지평* (pp. 181-185). 서울: 바다.
- 전미정. (2013). 문학 본능과 마음의 법칙(1): 모방 본능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4, 291-311.
- 조이스, 제임스 (1994). *더블린 사람들*. 김정환, 성은애 옮김. 서울: 창작과 비평사. [원저: Joyce, J. (1991). *Dubliners*. London: Campbell.]
- 킨취, 윌터. (2010). *이해: 인지 패러다임*. 김지홍, 문선모 옮김. 서울: 나남. [원저: Kintsch, W. (1998). *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r, G. H., & Morrow, D. G. (1990). Mental models in narrative comprehension. *Science*, 247, 44-48.
- Collie, J. & Slater, S. (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dds, M. R., Bovbjerg, D. H., Redd, W. H., & Cutmore, T. R. H. (1997). Imagery in human classical conditi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22(1), 89-103.
- Glenberg, A. M., Meyer, M., & Lindem, K. (1987). Mental models contribute to foregrounding during text comprehens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6(1), 69-83.
- Goldman, A. I. (2006). *Simulating minds: The philosophy, psychology, and neuroscience of mindrea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man, N. (1978). *Ways of world making*. Indianapolis: Hackett.
- Grabe, W. (2009).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er, W. (1978).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Johnson-Laird, P. N. (1983). *Mental mode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uritzen, C., & Jaeger, M. (1997). *Integrating learning through story: The narrative curriculum*. NY: Delmar.
- Lewis, D. (1983). *Philosophical papers: Vol. 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Kay, S. (1986).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In C. Brumfit & R. Carter (Eds.),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pp. 191-1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rty, R. (1989). *Irony, contingenc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zin, P., & Fallon, A. E. (1987). A perspective on disgust. *Psychological Review*, 94, 23-41.

-
- Rozin, P., Millman, L., & Nemeroff C. (1986). Operation of the laws of sympathetic magic in disgust and other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03-712.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Y: Academic Press.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62-185.

김영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30-4215
이메일: youngmeekim@hanmail.net

Received on August 21, 2014

Reviewed on October 13,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16, 2014

Accepted on December 10, 2014